

한국형 iSchool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Korean iSchool

이 성 신(Seongsin Lee)**

최 재 황(Jae Hwang Choi)***

이 창 수(Changsoo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데이터의 수집 |
| 2. 연구의 방법 | 2. 데이터의 분석 |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IV.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제언 |
| 1. iSchool의 탄생배경 및 의미 | V. 결 론 |
| 2. iSchool관련 선행연구의 개관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iSchool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정보학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자료는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한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iSchool도입을 통해서도 융, 복합 연구 및 교육의 기회, 현 문헌정보학의 위기 돌파를 위한 외연의 확장,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School의 도입은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아이스쿨, 교과과정개편, 융, 복합 연구, 문헌정보학 외연의 확장,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구축, 문헌정보학 정체성 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challenge LIS field and serve a starting point for the discussion on iSchool.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LIS scholars. Qualitative method was utilized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current curriculum reorganization is required for the success of Korean iSchool. In addition, the followings are the expected effects of iSchool: 1)increased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ducation, 2)expansion of LIS identity, and 3)creation of a new image of LIS. However, there was anxiety about losing LIS' s unique identity as an librarian education institute.

Keywords: iSchool, Curriculum reorganiza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 education, Creation of a new image of LIS, Identity crisis of LIS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leess@knu.ac.kr) (주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sl@k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13년 11월 20일 • 최초심사: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3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느 학문분야든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헌정보학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변화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각 분야의 학문발전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학 내의 학과명 혹은 교과과정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학문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다.

초기의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그리고 정보학으로의 변화의 저변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iSchool로의 전환의 모색역시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문헌정보학과들이 얼마만큼 현 시대의 기술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학과명과 교과과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¹⁾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기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시작된 문헌정보학에서 정보학으로의 변화의 시도는 그 후 미국도서관협회의 인가를 받은 30%이상의 대학들이 정보학부(School of Information) 혹은 정보학과(Information Studies)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도서관(Library)이라는 단어를 학과 명칭에서 삭제하는 결과를 낳았다²⁾ 이는 도서관분야에 정보학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의의 결과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전남대학교 도서관학과와 명칭이 ‘문헌정보학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 대다수의 대학들이 ‘도서관학과’(Library Science) 대신 ‘문헌정보학과’(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영역에 정보학이 도입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⁴⁾ 미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 말 이후 문헌정보학에서 문헌 즉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완전히 삭제하고 정보학이라는 용어를 대다수의 대학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상이할 뿐이다. 이에 더 나아가 2005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학과들이 iSchools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보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시도하고 있다. 초기 iSchool에 대한 아이디어는 몇몇 미국 내 정보학과

1) Laurie Bonnici, Manimegalai M. Subramaniam, and Kathleen Burnett, "Everything Old is New Again: The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rom LIS to iFiel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0, No.4(2009), p.273.

2) Andrew Dillon, "What it Means to be an iSchoo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3, No.4(2012), p.267.

3) 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227.

4) 상계서, p.227.

학과장들의 비공식적 모임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들의 초기 iSchool에 대한 아이디어의 밑바탕에는 전공자가 아닌 다른 이들 특히 대학당국에 정보학과 혹은 문헌정보학과를 어떤 학과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를 돕는데 가장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⁵⁾. 이렇게 시작된 iSchools은 현재 52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글로벌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학과라는 명칭 대신 대다수 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라는 명칭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iSchool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아시아지역의 몇몇 대학들이 iSchools 조직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iSchool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iSchool관련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iSchool관련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서구 특히 미국의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School관련 논의는 우선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iSchool이 도입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제언을 시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목적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을 마련하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자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는 첫째, iSchool에 대한 인식, 둘째, 서구 특히 미국중심으로 iSchool이 대두된 배경, 셋째,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가 iSchool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에 선결해야할 과제, 넷째,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가 iSchool로 전환되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 다섯째,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인터뷰대상자의 양해 하에 녹음하며 녹음된 인터뷰자료는 전사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1차(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의 세 단계로 제시한다.

5) iSchools Home page, <<http://iSchools.org>> [cited 2013. 10. 30].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iSchool의 탄생배경 및 의미

1990년대 초기 iSchool관련 아이디어의 탄생은 미국의 문헌정보교육협회(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모임에 참여하였던 University of Pittsburgh, Syracuse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Rutgers University의 네 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과장들의 비공식적인 회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⁶⁾ 초기 이 비공식모임의 목적은 정보교환과 더불어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 활성화이었다. 이후 모임은 2003년도에 이르러 네 개 대학에서 열 개 대학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이때부터 모임은 “the iSchools Caucus”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싱가포르경영대학의 정보시스템학과와 카네기멜론대학의 Heinz School까지 참여하여 12개 대학이 참여하는 조직이 되었다. 2013년 현재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의 52개 대학교의 정보학관련 학과가 소속 되어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Wiggins와 Sawyer에 의하면 iSchools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대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iSchool홈페이지에도 적시되어있듯 디지털정보자원의 폭발적 증가라는 환경적 요인이다.⁷⁾ 이는 도서관분야에 정보학이 도입 되면서 도서관학과들이 문헌정보학 혹은 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디지털정보자원의 폭발적 증가라는 환경은 또한 다음과 같은 믿음이 학자들 간에 공유되는데 일조하였다. 첫째, 정보, 기술, 사람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이 세 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디지털정보자원이 제공한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둘째, 디지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보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과학, 경영, 교육, 문화 분야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은 정보이용자, 정보기술, 정보이용에 대한 이해를 포함 하여야 한다.⁸⁾

두 번째는 도서관학과들이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학과들과의 통합 혹은 파트너십을 통해 융합적 연구를 장려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를 모색한데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Wiggins와 Sawyer은 주장한다.

6) iSchools Home page, <<http://iSchools.org>> [cited 2013. 10. 30].

7) iSchools Home page, <<http://iSchools.org>> [cited 2013. 10. 30].

8) Adrea Wiggins and Steven Sawyer, “Intellectual Diversity and the Faculty Composition of i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63, No.1(2012), p.9.

Dillon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 문헌정보학과들은 정보자료를 수장하고 있는 도서관, 기록관 등의 정보센터에 관심이 중심되어 있었던 반면 iSchool은 이용자, 조직, 문화 속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즉 iSchool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문헌정보학에서 iSchool로의 명칭의 전환이 아닌 두 분야의 지향점이 다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기존의 문헌정보학/정보학이 특정의 기관(예, 도서관, 기록관 등) 중심이었다면 iSchool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의 인간 활동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과가 제공하는 교과과정, 교수진의 연구영역에서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Bonnici, Subramaniam과 Burnett의 문헌정보학과와 iField¹⁰⁾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또한 같은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¹¹⁾ 이들은 iSchools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교원채용공고문과 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근간으로 어떤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를 기존의 문헌정보학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에서 iField로의 전환은 정보의 개념이 특정의 장소(예를 들면 도서관) 중심에서 정보가 보관 되어지는 장소와 무관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정보의 개념으로 확대된 정보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문헌정보학 혹은 정보학에서 iSchool로의 변화의 근간에는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학문의 융복합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 Dillon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시기부터 시작된 학문영역간의 교류에 대한 강조, 학과 간 협동과정의 개설을 통한 공동학위제 등이 iSchool로의 전환 움직임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²⁾ 문헌정보학은 태생적으로 학제적 성격을 지닌 학문분야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학문분야의 학제적, 융복합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iSchool이라는 아이디어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rsen의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iSchool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그들의 관점과 관심영역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¹³⁾

이상의 논의는 iSchool홈페이지의 iSchool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즉 iSchools은 여러 대학의 정보학과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서 그 근본 목적은 정보학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각각의 iSchool은 각자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정보, 사람, 그리고 기술의 요소들과 그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근원적인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¹⁴⁾

9) Andrew Dillon, *op. cit.*, p.268.

10) 저자는 iField와 iSchool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1) Laurie Bonnici, Manimegalai M. Subramaniam, and Kathleen Burnett, *op. cit.*, pp.263-274.

12) Andrew Dillon, *op. cit.*, p.267.

13) iSchools Home page, <<http://iSchools.org>> [cited 2013. 10. 30].

14) iSchools Home page, <<http://iSchools.org>> [cited 2013. 10. 30].

2. iSchool관련 선행연구의 개관

iSchool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며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또한 다양하지 않다. 이는 iSchool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짧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iSchool관련 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주제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iSchool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iSchool관련 연구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내의 iSchool과 iSchool조직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문헌정보학 혹은 정보학과의 석사과정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Chu는 두 비교 집단 간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¹⁵⁾ 이외는 달리 Wu등의 연구는 박사과정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비교 분석하여 iSchool이 다른 iSchools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대학들에 비하여 좀 더 정보과학과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교과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¹⁶⁾

둘째, iSchool 교수진의 전공 영역에 대한 연구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Wiggins와 Sawyer 그리고 Wu등의 연구에 의하면 iSchool들은 iSchools 회원이 아닌 대학들에 비해 그 교수진들의 학문적 배경이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은 교수진의 박사학위를 통해 비교 분석되었다. Wu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iSchool의 교수진들은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경영학, 경제학, 엔지니어링, 교육학, 심리학 등 상당히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큰 주제의 선행연구 이외에 주목해야할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iSchool이 탄생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iSchool이 현 문헌정보학 혹은 정보학 분야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 Dillon의 연구를 주목해 볼만하다. Dillon은 기존의 문헌정보학이 기관중심의 전통적 모형 이었다면 iSchool은 학제간 융복합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진일보된 모형이며, iSchool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문헌정보학이 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둘째, Chen등의 연구는 중국내 문헌정보학과장들이 iSchool로의 변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조사하였다.¹⁹⁾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내의 문헌정보학과장들은 대부분 iSchool로의 변화는 학제간 연구, 정보기술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iSchool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5) Heting Chu, "iSchools and non-iSchools in the USA: An examination of their master's programs,"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 29(2012), p.15.

16) Dan Wu et al., "The state of iSchools: and analysis of acade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8, No.1(2011), p.33.

17) *Ibid.*, p.33.

18) Andrew Dillon, *op. cit.*, pp.269-270.

19) Chuanfu Chen et al., "The Attitude of LIS Chairs Toward the iSchools Movement in China: A Contemporary Grounded Theory Analysis," *Aslib Proceedings*, Vol.64, No.6(2010), p.591.

Ⅲ.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1.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10명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자들과의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25분내외의 면대면 심층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²⁰⁾

첫째, iSchool에 대한 인식

둘째, 서구 특히 미국중심으로 iSchool이 대두된 배경

셋째,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자가 iSchool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에 선결해야할 과제

넷째,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자가 iSchool로 전환되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

다섯째,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인식

인터뷰는 인터뷰대상자들의 동의하에 전체가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인터뷰자료는 전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아래 표와 같다²¹⁾

〈표 1〉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	박사학위취득국가	재직 기간	연령대	성별
참가자 1	한국	18년	50대	남
참가자 2	미국	9.5년	40대	여
참가자 3	미국	10.5년	40대	여
참가자 4	미국	10년	50대	남
참가자 5	영국	10년	50대	남
참가자 6	미국	8년	40대	남
참가자 7	한국	18년	40대	남
참가자 8	한국	17년	50대	남
참가자 9	한국	3년	40대	여
참가자 10	한국	10년	50대	남

20)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위의 질문들은 구체적인 질문문항이 아니다. 즉 다섯 항목은 질문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1)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였다.

위의 <표 1>과 같이 인터뷰대상자들이 교수직으로 재직한 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이었으며 연령대는 40-50대였다. 박사학위 취득국가는 한국과 외국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2. 데이터의 분석

녹음된 인터뷰자료는 연구자가 전사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²²⁾ 질적 분석 방법은 다양하다. 이는 명확한 한 가지 질적 분석 기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²³⁾ 가장 널리 알려진 질적 분석 방법들 중의 하나는 Strauss와 Glaser가 주장한 근거이론방법이다.²⁴⁾ 이는 질적 자료를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단계적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세그멘팅, 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이라는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다.²⁵⁾ 세그멘팅이란 코딩의 전단계로서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비추어 전사된 인터뷰자료들 중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구별해 내는 작업을 일컫는 것이다.²⁶⁾ 초기코딩은 본격적인 코딩작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그멘팅된 자료들을 평가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 혹은 의미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층코딩이란 초기코딩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나 의미들 중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그룹핑을 시도하는 것이다.²⁷⁾ 이의 결과 연구자는 데이터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범주화가 가능해진다. 마지막단계는 주제의 발견이다. 심층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을 비교 분석하여 서로간의 관련성이나 관계를 발견하거나 혹은 범주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나 의미를 발견 해내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주제의 발견이다.²⁸⁾

본 연구는 위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인 세그멘팅, 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 과정을 따른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iSchool관련 사전인식 조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iSchool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논의를 현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iSchool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연상되는 단어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미

22) 인터뷰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특정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2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서울:아카데미프레스, 2012), p.528.

24) John Creswell, *Educational Research* (New Jersey:Merrill Prentice Hall, 2002), p.444.

25) 김영천, 전제서, p.528.

26) 상계서.

27) 상계서.

28) 상계서.

국중심의 서구에서 iSchool이 도입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의 분석을 통한 초기코딩과 심층코딩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iSchool 도입 배경 관련 인식에 대한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 웹기반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 인류문화의 혁명적 진화 	정보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학문간 경계가 재편됨 융합을 강조하는 최신의 경향성 도서관학의 한계점 인식 연계학문들과의 관계를 생각함 	학문의 융복합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다변화 새로운 인재에 대한 요구 발생 학생진로문제에 대한 고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맺기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 요구

미국을 중심으로 iSchool이 대두된 배경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첫째, 정보기술의 발전, 둘째, 학문의 융복합화 경향, 셋째,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 요구이다.

다음으로 iSchool로 연상되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iSchool로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 프로그램 인재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전문가의 양성 영문표기가 갖는 이미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관련 기업의 이미지 정보기술이 연상됨 발전된 기술 	정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이라는 단어가 연상됨 융합적 영역 연계 	융, 복합

iSchool로 연상되는 단어 혹은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였다. 첫째, 교육, 둘째, 전문성, 셋째, 정보, 기술, 넷째, 융복합 이었다.

나. iSchool도입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²⁹⁾

iSchool관련 사전 인식 조사 후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우리나라에 iSchool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한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 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정보학의 위기 • 문헌정보학의 기반이 약함 • 전통적인 도서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인프라가 약한 한국의 문헌정보학계 • 문헌정보학계가 침체되어있음 	현 문헌정보학계의 전반적 위기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가 이루어짐 • 정보학 지향 필요 •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서상의 정립 필요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필요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외연의 확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짐 • 융, 복합적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정보를 다루는 종합적 능력이 필요한 시대 • 문헌정보학은 융복합 학문임 	융복합 연구 가능성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도 iSchool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째, 현 문헌정보학계의 전반적 위기의식, 둘째,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외연의 확장, 셋째, 융복합 연구에 대한 기대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석해보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우리나라에 iSchool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 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정보학 지향으로 인한 도서관 위상의 악화 • 도서관, 사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단계임 • 정보학, 도서관 모두를 상실할 수 있음 	기존 문헌정보학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정보학이라는 용어의 익숙함 • 아이스쿨이 추구하는바가 추상적임 	iSchool과 전통적 문헌정보학과와의 이미지 불일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기존 문헌정보학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둘째, iSchool과 전통적인 문헌정보학과와의 이미지가 일

29) 조사결과 대부분의 인터뷰대상자들은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iSchool의 탐색이 연구목적인 질적 연구 논문으로 몇 명의 인터뷰대상자가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다. iSchool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 하기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iSchool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응답의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 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쿨은 융복합적 성격을 지님 • 연구주제 확장 필요 • 대학원 중심 교육 필요 • 관련학문과의 적극적 융합 필요 • 문헌정보학만으로는 아이스쿨의 성공에 한계가 있음 • 융복합적 기술을 가진 사람의 참여가 중요함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교수진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내용 보강 필요 • 인재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 있음 • 아이스쿨의 삼요소를 중점으로 한 교과과정 개편 필요 • 아이스쿨에 걸맞은 교과과정 필요 • 변화의 핵심은 교과과정임 • 문헌정보학이 사서교육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음 	iSchool취지에 걸맞은 교과과정의 개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외부기관들의 아이스쿨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 • 학생들의 취업처가 아이스쿨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질 필요 있음 	외부기관의 iSchool에 대한 확고한 인식 필요

분석결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교수진의 확보, 둘째, iSchool 취지에 걸맞은 교과과정의 개편, 셋째, 외부기관의 iSchool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iSchool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했을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 iSchool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의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헌정보학의 외연을 비약적으로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헌정보학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 • 시장이 좁은 문헌정보학의 외연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아이스쿨의 이미지를 통해 외연의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문헌정보학 외연의 확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와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가능 • 현실적 교육 가능 •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가능 •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가능 	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음 • 일반인이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임 •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낮음 	일반인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식제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의 취업이 가능해질 것임 • 다양한 곳에 취업 가능 • 특화된 전문가의 양성이 가능해짐 • 취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가능함 • ICT관련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함 	다양한 분야에 취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디한 이미지가 떠오름 • 고급관리 양성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됨 • 고급인재의 양성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됨 • 모든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이미지가 연상됨 	새로운 이미지구축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했을 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문헌정보학 외연의 확장, 둘째, 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가능, 셋째, 일반인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식제고, 넷째, 다양한 분야에 취업가능, 다섯째,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의 구축, 여섯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등이 언급되었다.

마. iSchool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측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했을 경우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iSchool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의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결과

자료의 1차(초기) 코딩결과	심층코딩결과(범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문헌정보학 교육의 정체성 상실 • 융합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 우려 • 학과의 특성이 상실될 수 있음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약화될 수 있음 • 도서관 사서로서의 교육이 어려움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 상실 우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했을 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혼란과 둘째,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었다.

바. 심층코딩을 통해 발견된 주제들

주제의 발견은 본 논문이 채용한 질적 분석 방법의 마지막 단계이다. 초기 코딩과 심층코딩을

통해 드러난 개념들 중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거나 연결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주제를 찾는 과정이 주제의 발견이다. 또한 주제의 발견은 단순히 초기 코딩과 심층코딩 결과 드러난 공통의 주제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발견된 주제어들 사이의 위계관계, 연결 관계, 패턴 등의 발견을 포함하는 단계이다.³⁰⁾ 본 연구의 초기 코딩과 심층코딩 결과 발견된 개념들은 아래의 스물세가지 이다.

- 1) 정보기술의 발전
- 2) 학문의 융복합화 경향
- 3)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 요구
- 4) 교육
- 5) 전문성
- 6) 정보, 기술
- 7) 융, 복합
- 8) 현 문헌정보학계의 전반적 위기의식
- 9)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외연의 확장이 필요함
- 10) 융복합 연구 가능성에 대한 기대
- 11) 기존 문헌정보학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12) iSchool과 전통적 문헌정보학과와의 이미지 불일치
- 13)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교수진의 확보
- 14) iSchool취지에 걸맞은 교과과정의 개편 필요
- 15) 외부기관의 iSchool에 대한 확고한 인식 필요
- 16) 문헌정보학 외연의 확장 가능성
- 17) 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 가능
- 18) 일반인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식제고 가능
- 19) 다양한 분야에 취업 가능
- 20) 새로운 이미지구축
- 21) 새로운 변화에 적응가능성 높아짐
- 22)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혼란
- 23)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 상실 우려

이상의 스물세가지 범주들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주제로 요약, 제시 될 수 있다.

첫째, 융복합적 연구 및 교육의 기회

30) 김영천, 전계서, p.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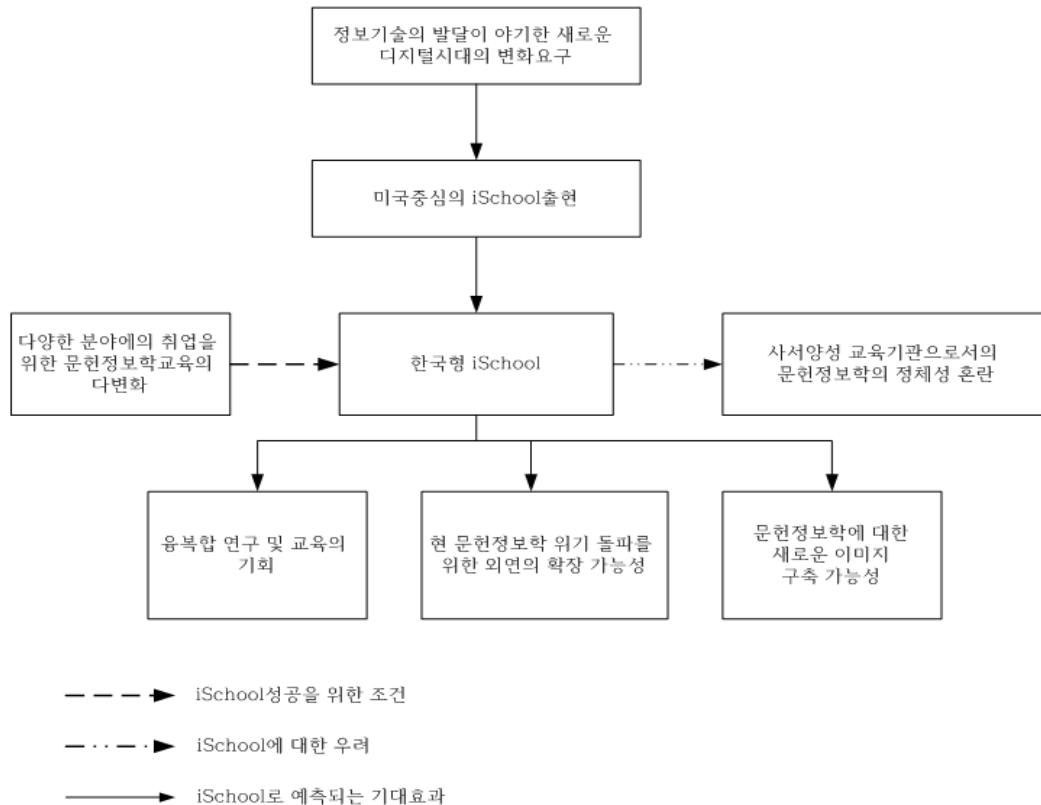
둘째, 정보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변화요구
셋째, 현 문헌정보학 위기 돌파를 위한 외연의 확장 가능성
넷째,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 가능성
다섯째, 다양한 분야에의 취업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다변화
여섯째,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혼란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주제들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iSchool 관련 여섯 가지 주제들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형 iSchool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IV.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제언

앞서 언급되었듯, 주제의 발견은 단순히 초기 코딩과 심층코딩 결과 드러난 공통의 주제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주제의 발견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된 주제어들 사이의 위계관계, 연결 관계, 패턴 등의 발견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발견된 본 연구의 여섯 가지 주제들 간의 연결 관계의 탐색을 통해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인터뷰자료의 코딩과정을 거쳐 드러난 iSchool관련 여섯 가지 주제어와 이들 간의 관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의 관계들은 초기코딩과 심층코딩을 통해 발견된 주제들뿐만 아니라 인터뷰 원 자료를 근거로 도출되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디지털시대의 다양한 변화는 서구 특히 미국 중심의 iSchool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 iSchool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미국중심의 iSchool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iSchool 관련하여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iSchool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인 의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파급효과로는 융, 복합 연구 및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과 현재 문헌정보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문헌정보학 외연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일반인들이 문헌정보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문헌정보학과가 가지고 있던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역시 존재하였다. 따라서 한국형 iSchool의 성패는 iSchool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들을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문헌정보학자들이 현재 iSchool관련하여 가지고 있

는 우려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는 iSchool을 설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한국형 iSchool 탐색

V. 결 론

2005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iSchool로의 변화의 움직임은 문헌정보학 혹은 정보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iSchool의 탄생 배경에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디지털시대의 도래라는 환경적 요인과 융, 복합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문헌정보학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아직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 iSchool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iSchool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의 목적

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기대효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국형 iSchool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 iSchool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함 이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녹음된 인터뷰자료는 전사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과정을 통해 iSchool 관련 여섯 가지 주제를 발견하였으며 그 여섯 가지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융복합적 연구 및 교육의 기회

둘째, 정보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변화 요구

셋째, 현 문헌정보학 위기 돌파를 위한 외연의 확장 가능성

넷째,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 가능성

다섯째, 다양한 분야에의 취업을 위한 문헌정보학교육의 다변화

여섯째,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혼란

마지막으로 인터뷰 원 자료와 초기코딩 및 심층코딩 결과를 토대로 위의 여섯 가지 주제들 간의 연결 관계를 탐색, 제시 하였으며 제시된 관계를 근거로 한국형 iSchool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자들은 iSchool의 도입이 융복합 연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현 문헌정보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외연의 확장이 가능하며,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한 교육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iSchool의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서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위치마저 상실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문헌정보학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답이 iSchool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 문헌정보학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역시 iSchool에 대한 논의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iSchool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iSchool 관련하여 그 성패에 대한 판단이 미국에서조차 시기상조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의 무조건적인 도입은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이 학계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iSchool을 도입 하고자할 때에는 본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우려요인과 선행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연구는 이에 덧붙여 과연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iSchool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2012.
- 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 Bonnici, Laurie. J., Subramaniam, Manimegalai. M., and Burnett, Kathleen. "Everything Old is New Again: The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rom LIS to iFiel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0, No.4(2009), pp.263-274.
- Chen, Chuanfu., Wang, Ping., Liu, Yaqi., Wu, Dan., Wu, Gang., and Ma, Haoqin. "The Attitude of LIS Chairs Toward the iSchools Movement in China: A Contemporary Grounded Theory Analysis." *Aslib Proceedings*, Vol.64, No.6(2010), pp.591-614.
- Cherry, Joan M., Duff, Wendy M. and Freund Luanne. "Student perceptions of the information professions and their master's program in information studi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33(2011), pp.120-131.
- Chu, Heting. "iSchools and non-iSchools in the USA: An examination of their master's programs."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 29(2012), pp.1-17.
- Cox, Richard. J., Mattern, Eleanor., Mattock, Lindsay., Rodriguez, Raquel., and Sutherland, Tonia. "Assessing iSchool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3, No.4(2012), pp.303-316.
- Creswell, John. *Educational Research*. New Jersey: Merrill Prentice Hall, 2002.
- Dillon, Andrew. "What it Means to be an iSchoo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3, No.4(2012), pp.267-273.
- iSchools Home page, <<http://iSchools.org>> [cited 2013. 10. 30].
- Lopatovska, Irene., Bates, Marcia, J., Hastings, Samantha., Pattuelli, M. Cristina., Buckland, Michael., Giannini, Tula., and Dalbello, Marija. "iSchools and L-Schools: Converging or Diverging Communiti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49, Issue.1(2012), pp.1-3.
- Seadle, Michael. "The new mission of a new ischool." *Library Hi Tech*, Vol.25, No.1(2007), pp.5-9.
- Wiggins, Andrea and Sawyer, Steven. "Intellectual Diversity and the Faculty Composition

of i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63, No.1(2012), pp.8-21.

Wu, Dan., He, Daqing., Jiang, Jiepu., Dong, Wuyi., and Vo, Kim Thien. “The state of iSchools: and analysis of acade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38, No.1(2011), pp.15-3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Young-Che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 Seoul: Academypress, 2012.

Korean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Association. *Understanding of the Newest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